

학교운영계획서

소속	〇〇초등학교	직위	〇〇	성명	〇〇〇
----	--------	----	----	----	-----

차례

I. 학교교육의 목표	1
1. 교육비전	1
2. 추구하는 인간상	2
3. 기본방향	2
4. 삼우초등학교 이야기	3
5. 삼우에서 주는 시사점	7
 II. 학교교육과정 운영	 8
 III. 학교교직원 관리 및 지원	 10
 IV. 지역사회 연계활동	 12
 V. 시설, 환경, 재무 등 일반경영	 13
 VI. 맺는말	 14

학 교 운 영 계 획 서

I 학교교육의 목표

지원자의 ‘학교운영을 위한 철학적 바탕’

- ☑ 학생은 단순한 가르침(敎)의 대상으로 대상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그들에게 주체적 참여의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주체로 서도록 해야 한다.
- ☑ 교사가 개별 교육기관으로 존재할 때 능동·창의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
- ☑ 수업(受業, 授業)에는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수업이 공존한다.
 -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학생도 가르치면서 배운다.
- ☑ 학교교육과정은 교사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길잡이 자료다.
- ☑ 학교교과목은 학교나 지역의 상황이 반영되어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그 학교가 특색으로 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을 학생과 지역에 맞게 엮어 놓은 것이다.
- ☑ 지역사회와 학부모는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적 파트너로 존재한다.
- ☑ 학교장은 학교나 지역의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교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조정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교육비전]

학생의 삶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살아 숨 쉬는 학교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육의 기저에는 헌법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교육가족이 한 방향으로 봐야 할 교육비전으로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질료로 삼았다.

[추구하는 인간상]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더불어 행복을 실현하는 민주시민

인간은 각자가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존재이며, 각각의 개인이 가지는 가치는 그 어떤 사물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서로 존중하여, 그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민주시민성이며, 이는 교육에서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 방향]

학교장은 법적으로 학교의 교육을 관리 감독하지만, 교실마다 서로 다른 교육적 환경에 처해 있음을 이해하며,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자율성의 기반에서 학교교육이 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교육의 방향키로 삼고자 한다.

기본방향 ① 학생들의 학력은 미래의 자산이다.

학생들의 배움이 서열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삶과 연결되어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에 머물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역량으로 향할 때, 그들의 학력은 무형의 미래자산이 될 것이다.

기본방향 ② 학교는 자유와 안정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선택하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한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학창시절에 경험해야 하며, 또한 부모, 그리고 교직원과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때, 자유, 창의, 도전정신을 가지는 미래 사회인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기본방향 ③ 민주시민성은 학생들이 일상으로 경험할 때 자라난다.

민주시민성은 일회성 교육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의 경험으로 자라게 되기에 학교의 교과과정, 방과후과정, 생활과정, 잠재적과정 등에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방향 ④ 학생들은 정의와 배려의 문화 속에서 평등정신을 키운다.

어릴 때 받는 차별과 정의롭지 못한 경험은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어, 자존감을 상실한 사회인으로 커가기에, 학교는 그 어떤 직업도 서로 평등한 관계임을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삼우초등학교 이야기]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작은 학교

가. 삼우초 교육과정 체계



[참조:삼우초등학교 홈페이지]

나. 삼우초 발자취

1) 학교철학: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작은 학교

1. 자연사랑, 인간사랑, 문화사랑

사람의 배움 활동이 만남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 만남에 이해와 사랑이 깃들 때 행복감이 느껴지기 마련이며, 학교에서의 배움은 그러한 행복한 만남을 안내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는 교육가족들이 모여 ‘작은 학교가 갖는 아름다움’을 조용하게 시작하려는 학교이다.

2.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이 공유된 학교

교육 활동을 펼치는 미립(방법)과 내용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것(우리 문화)에서 찾고, 그 활동에서 학생이 늘 중심에 서 있으며, 교사의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 토론의 문화(합의에 이르는 팀웍)를 중시하는 학교이다.

3. 참다운 즐거움을 찾는 학교

배움의 과정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작용하게 하며 여유 속에서 참 나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불어 사는사람들을 사랑하는 품성을 가꾸어 나아간다. 우리 문화에 터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체험학습의 강조, 농사일의 이해와 탐구, 인간사랑을 위한 행복의 시간 등을 구체화하여 만들어가는교육과정을 지향한다.

4. 지극히 한국적이며 상식적인 학교

교육의 제반 활동이 학교의 지역성(한국적 문화)과 교육 주체들의 중치(민주성과 자율성)를 중요시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학교를만들어 가되, 교육주체들의 자주적 노력으로 이미 교육적 성과가 검증된 작은학교교육연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회원학교와의 공동체성을 이어간다.

2) 삼우의 역사: 삼우초 거듭남의 과정

삼우초등학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면소재지 학교인 고산초등학교로의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1999년)되었던바, 2000학년도부터 2002학년도까지 지역사회 인사와 일부 교원이 농촌학교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던 중, 동일 지역(완주군 고산면관내)의 또다른 통폐합 대상학교였던 삼기초등학교의 학부모와 결합하여 작은 학교끼리의 통합을 이룬 학교이다.

1. 학교 통합 추진의 과정과 노력

고산서초등학교와 삼기초등학교는 면소재지 중심학교로의 통폐합 방식을 거부하고, 두 학교는 2001년 11월 각기 학부모 총회를개최하여 만장일치로 고산서초와 삼기초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이래, 2002년 4월 교육청의 행정적인 ‘고산서초와 삼기초의통합 통보’가 있기까지 ‘통합추진위원회’의 활동과 과정(성과)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2001년 11월 24일	통합추진위원회의 개최 : 통합추진위원회 조직과 임원선출
11월 28일	전라북도교육청과 완주교육청 방문 - 도교육청 행정과장 : 2002년 2학기 통합 가능성 언급 - 완주교육청 관리과장 면담 : 부정적인 답변
12월 10일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 지역의 교원단체 대표자 참석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 논의와 추후 일정 논의
12월 11일	전교조전북지부 부지부장 도교육감 방문 - 교육감으로부터 통합추진위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
12월 14일	통합추진위원 및 전교조전북지부 부지부장의 완주교육청 방문 - 교육장과 관리과장 배석 - 양교 학부모총회에서 설문조사 후 3/4이상 찬성이면 통합하기로 합의 - 학부모 대상의 설문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2002년 2월 4일	통합추진위원장, 전교조전북지부 부지부장 도교육청 방문 - 교육감, 행정과장 배석 - 교육감이 조속한 시일내 학부모총회를 열어 통합하도록 행정과장에게 지시
2월 16일	삼기초등학교 학부모총회 - 찬성 17, 반대 1세대)
2월 21일	고산서초등학교 학부모총회 - 만장일치 찬성
4월	고산서초와 삼기초 통합 결정

2. 농촌교육의 희망 만들기 시작과 과정

▶ 문화부림교과연구회 조직

2001년. 교육 과정 활동에 남아있는 일제식민사고에 따른 교육과정 말글과 배움 미립의 개선을 위한 문화부림연구회 조직. - 교사 염시열, 나영성, 정은숙, 송수갑, 지혜란, 이현근, 김종환 등

한국의 교육 현장에 산재한 이식 문화를 청산하고 한국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문화부림연구회’가 조직되어, 삼우초등학교에서 농촌교육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모임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 연구회(회원)의 주요 활동

2001-2003년. 도교육청 주관의 자생씨클 연구발표회 참여 3회,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민족분과 활동 2년, 전교조 참교육실천발표대회 3년, 한글학회 초청 발표 2회, 교육평론(월간 교육잡지) 연재, 우리교육(월간교육잡지) 취재, 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 활동,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 활동, 전북농촌교육발전연구회 활동,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주관 ‘농어촌, 작은학교 교육살리기 전국토론회’ 발제(사례발표), 선진학교 탐방(남한산초등학교, 거산분교, 이우학교 등)

▶ 삼우초등학교의 교육운동과 교사들의 결함

① 2002년. 교사 송수갑 부임 - 완주군 동료교사들의 권유로 통폐합 과정에 있는 고산서초등학교에 부임(내신)하게 되어, 지역사회 인사들과 농촌학교의 현안 논의 거듭 ② 2002년. 농촌교육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연구회 회원간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하나의 작은 학교에 결함하는 방안 협의 ③ 2002년. 지역사회의 작은 교육운동 시작 (예) ‘고산지구급식관리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정 -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안을 마련하고 5개교(고산초, 삼기초, 고산동초, 고산서초, 고산고) 전 학운위 위원 전체회의 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학교급식을 개선 ④ 2003년. 3월 1일자 통합(고산서초와 삼기초) ⑤ 2003년. 두 학교통합추진위원회 해산 및 삼우초등학교발전협의회(회장 여태권, 구윤희) 발족 - 삼우초 전면 개축 방안 논의(교육청, 국회의원 방문) ⑥ 2003년. 9월 1일자 삼우초등학교로 학교 이름 개칭 ⑦ 2003년. 삼우초 전면 개축 방안 확정(예산 책정 - 2004년 중 시공 예정) ⑧ 2003년. 작은학교 희망 탐색과 밑그림 구상 - 학운위 운영위원, 연구회 회원 ⑨ 2003년 9월. 삼우초 발전 방안에 대한 철학적 접근 논의 및 결함(초빙) 대상 교원 협의 - 연구회원, 학운위원 ⑩ 2003년 10월. 문화부림연구회 차원의 삼우초 결함 합의(염시열, 나영성, ○○○) ⑪ 2004년 1월. 삼우초 교사 결함(인사) 방안 협의 - 연구회원, 운영위원 ⑫ 2004년 2월. 삼우초 교원초빙관련 전북도교육감 면담 - 학운위 위원장, 운영위원 ⑬ 2004년 2월. 완주교육장 면담 및 전언 설명(교원 인사와 관련한 삼우초의 바람) - 교사 송수갑 ⑭ 2004년 2월. 교원 인사 발표(교장, 교감, 교사 염시열, 나영성, 이현근 전입) ⑮ 2004년 2월. 삼우초의 학교상 논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위원과의 만남, 전 교원 등반 행사

2004년 3월 2일.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작은 학교’ 시작

[참조:삼우초등학교 홈페이지]

[삼우초등학교에서 주는 시사점]

삼우초등학교는 2000년대 초반 농촌의 작은 학교가 폐교를 맞이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학교만의 철학을 세우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그 정체성을 꾸준히 지켜온 학교이다.

특히 혁신교육 12년을 온전히 함께하며 혁신더하기학교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전국의 학교교육의 본이 되고자 노력하여 왔음을 삼우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삼우초등학교가 걸어온 20년을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전환의 기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시사점 ① 삼우초의 철학과 문화를 지속 발전에 함께할 구성원이 필요

- ☑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는 작은 학교’의 비전으로 시작된 삼우초의 철학과 문화의 지속적 추진
- ☑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철학과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의 유행(프로그램이나 수업 방법 등)에 휩쓸리지 않고, 학생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
- ☑ 철학과 문화를 지속시키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의 합의된 성찰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살피며 미래 교육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문화로 재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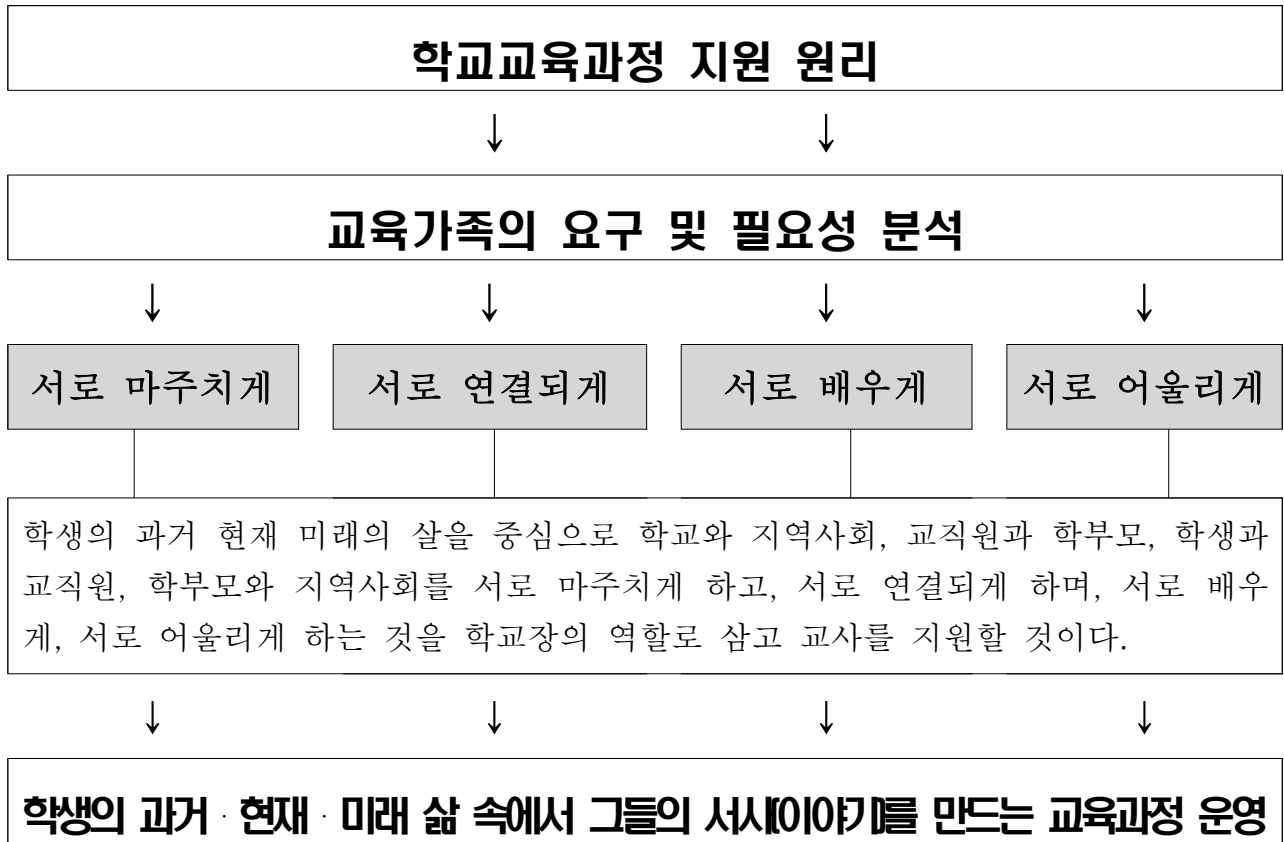
시사점 ② 삼우초에서 이어져 온 핵심 교육 활동을 새로운 교과목으로 개발 운영

- ☑ 지난 20여 년간 학교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온 핵심 교육 활동을 교과목으로 개발 운영하여, 삼우의 빛깔이 담긴 교육 활동의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의 연속성과 효과를 높임
- ☑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변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여 삼우초 교육과정의 목표와 의미를 지속·발전시킴

시사점 ③ 역사성과 자생성을 갖춘 학교 자치 실현

-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며,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동료성을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 자치 실현
- ☑ 마을과 지역이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마을과 지역, 학교가 상생 발전하는 지역 학교 공동체 만들기
- ☑ 학교와 함께 해온 교육 가족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환경들을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소통·협력하여 학교 자치를 실현

II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



[더불어 학생들의 온전한 경험을 채워가는 교육과정]

학생이 <우리 집>이라고 말할 때는 특별한 감정을 담고 사용한다. 학생은 스스로 소속감을 느낄 때 정서적 안정을 더욱 느끼기 때문이다. 학생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혈연공동체 <우리 집>에서의 경험을 확장하여 타자와 함께하며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학교는 단순히 <공간>을 넘어서 우리 학생들이 온전한 사회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경험 1. 존중받는 학생

미래 사회 희망인 학생들이 존중받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거나 젊은 시절에 존중받았던 경험은 소중하다. 존중받았던 경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속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우의 학생들이 존중받으며 그들의 삶터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 우리학교가 서로 친절하는 태도로 학생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인정하고, 각 학생의 처지를 살피 지원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2 성장하는 교육가족

서로 배우며 살며 가르치는 교육가족의 삶이 있는 <장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은 자연의 섭리이다. ‘우리는 각기 다른 ‘날’ (성장의 수준)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서로 다른 존재의 성장을 존중하며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장소가 되도록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삼우의 교육가족이 성장의 철학과 함께 할 수 있도록

- 우리학교는 어린아이가 뒤집고 앉고 기어 다니는 것을 익힌 다음 비로소 걷고 달리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성장의 원리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 우리학교는 교육가족의 성장 철학 이해를 위해서 수업대화, 독서 모임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3 협력하는 장소

서로 도우며 생활하고 배우는 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협력이라고 한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거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창조해낼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미래에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역량이다.

우리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장소인 교실이 협력의 장소가 되도록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며 배우는 장소 공동체를 지향하며

- 우리학교는 성장과 행복, 협력의 원칙 안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 우리학교는 교육가족이 교육과정에서 협력의 행위가 일어나도록 돕겠습니다.

문화 4 행복한 삶터

학교가 행복을 경험하는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갖게 하는 공간을 넘어 자소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수업 속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학부모가 배움을 통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 ‘나도 저렇게 어른이 되어서 행복하게 배우며 살아야겠구나’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나 학부모가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시절 행복의 경험을 했던 우리 삼우를 꿈꾸며

- 우리학교는 관행적으로 학생들을 경쟁시켜 보상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행사 하나라도 학생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으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학교는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자원봉사 활동과 교육 기부를 통해, 또 하나의 선생님이 되는 기회를 마련하여, 어른들의 삶이 학생들의 본이 되는 문화가 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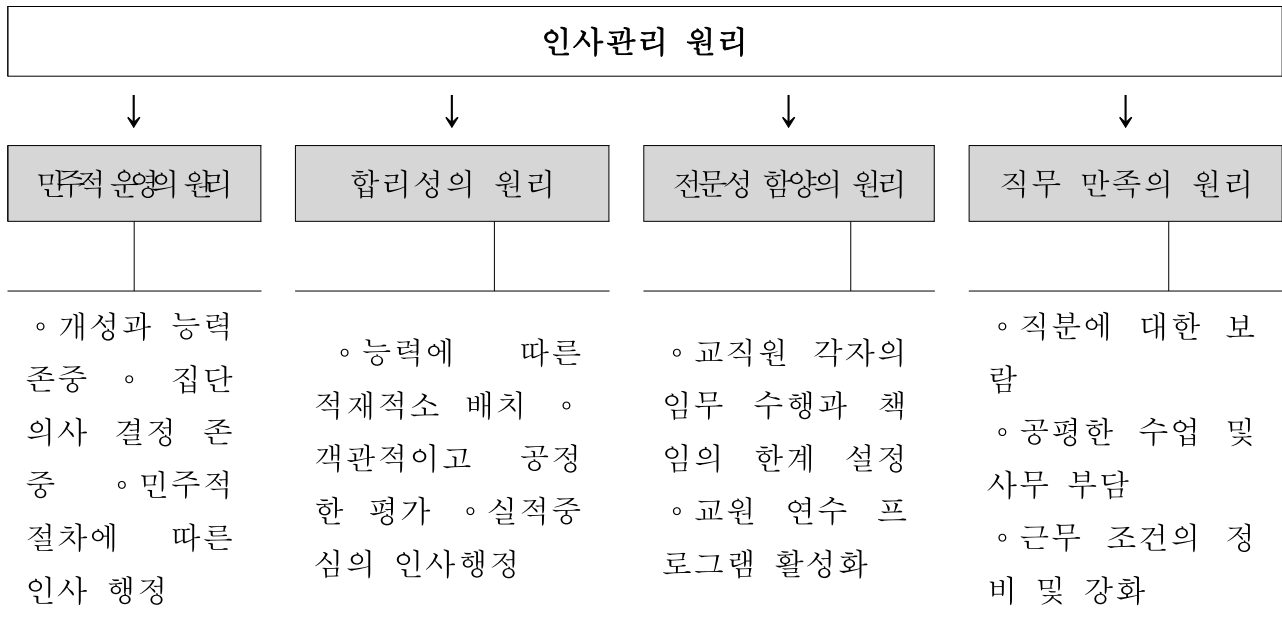
Ⅲ 학교교직원 관리 및 지원

학교장은 학생 교육에 있어서 교육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자기 연찬에 힘써야 한다. 학생 중심의 교육철학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소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학교 구성원들을 조화시키고,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역할을 통하여 학교의 대내·외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량을 갖춘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 인사관리

인사행정은 구성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줄 뿐만 아니라, 전문성 심화 및 자질 향상을 유도하는 동시에 근무 의욕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를 활용하고자 한다.



2. 학교 담임 배정

가. 학교의 형편, 교사의 능력, 학생의 특성,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한 공정한 배치
 나. 학교 인사 자문 위원회 구성으로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학년 담임과 교과 담임을 배정하여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교내 인사로 교육 목표 달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다.

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담임 연임제, 학년 중임제 등을 적극 고려한다.

3. 업무 분장

가. 학교 업무는 학교의 교육 목표, 경영 목표, 경영 방침, 교육 중점의 구현에 최적의 조건이 되도록 분장한다.

나. 연령, 경력, 의욕과 창의성, 사무 내용에 따른 성별, 전공 분야와의 업무 일치, 사무 처리 능력과 기술 등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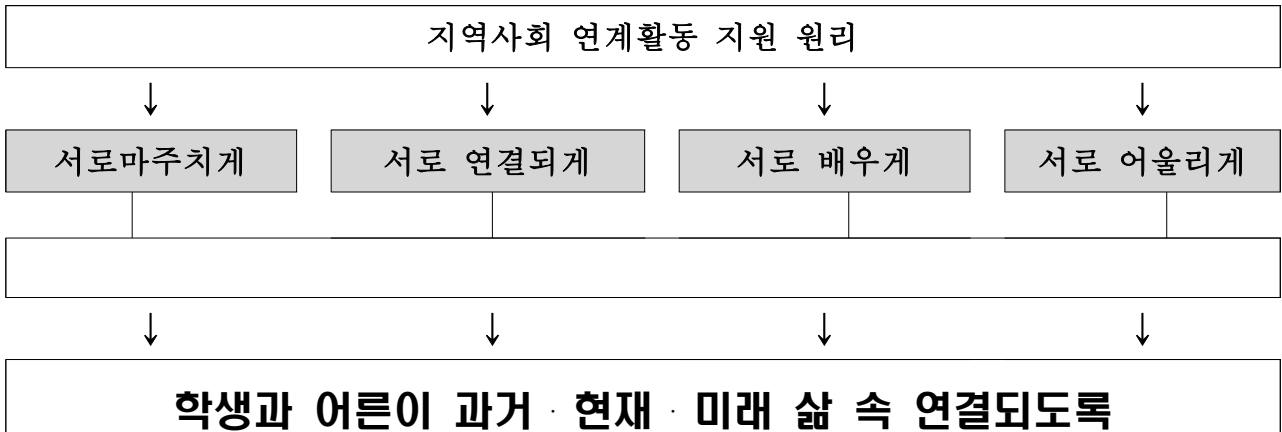
다. 교직원의 능력, 희망, 취미, 개성 등을 존중하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4. 근무성적 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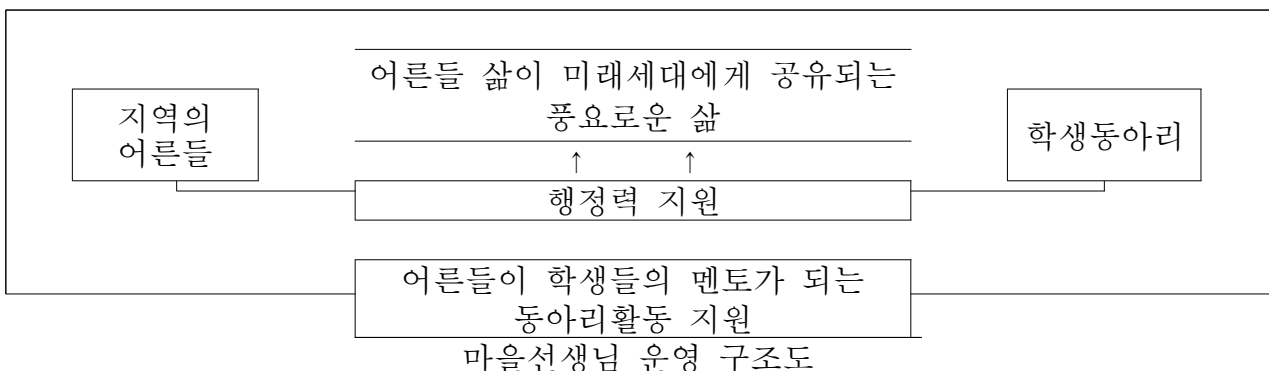
가. 직무 수행 능력과 근무 실적, 가치관, 태도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누적 평가한다.

나.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장학 활동, 학급 및 학년 교육 과정 운영, 학습 지도 및 생활 지도, 동료 및 다면 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평가한다.

IV 지역사회 연계활동



1. 지역 사회의 협조를 통한 “작지만 아름답고 활기찬 학교” 살리기
 - 이영준교장선생님 부임 후 학생 수 증가(2014년 29명) (2015년 32명)
 - 학생들이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역민들이 말하고 있음
 - 학생 수는 적지만 자존감을 키워서 활기찬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학생들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과 연결시켜 주고자 함
2. 마을 사람들(멘토)과 연계된 동아리 활동
 - 학생들의 똘(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연결하여 다양한 활동꺼리를 찾아줌



3. 졸업생 초청 만남의 날 운영
 - 다년간의 지사초 근무 경력과 지역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졸업생을 월 1회 초청하여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자존감을 심어줌
 - 동창회별 모교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동창회와 동문회가 학교에 관심을 갖도록 함(내고향 학교 살리기 위원회 구성 추진)

4. 지역사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학교 문화 만들기

- 전임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경영에 집중하고자 한 (노력)중점 사항을 분석하여 이어지도록 함
- 학교가 지역사회의 삶을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사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릴 때 살았던 지사를 고향이 되게 함(추억 만들기 활동 강화)

5. 교사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지원하는 학교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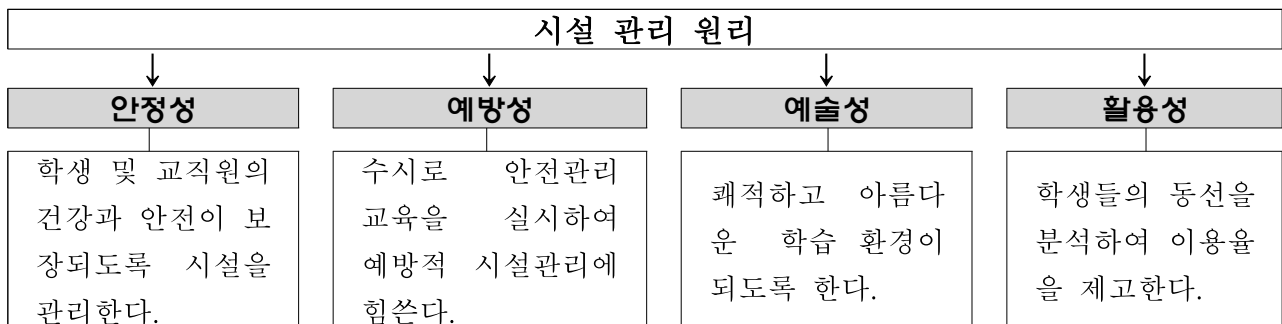
- 지사는 출퇴근이 먼 지역으로 교사들의 순환 주기가 빠름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근무하고 싶은 학교 만들기 펼침
- 지역 사회의 교사 존중 문화 만들기

V 시설, 환경, 재무 등 일반경영

1. 시설 관리

학교의 시설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하며 이런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관리에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건강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다.

학교의 기존 시설을 매뉴얼에 따라서 수시 점검하며, 학교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즉시 수리·보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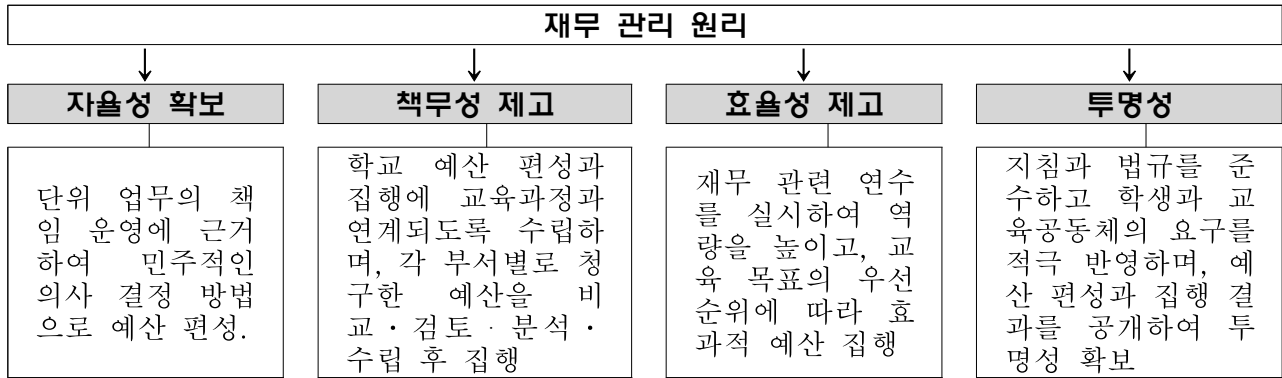
2. 환경 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학교보건법」 제4조제7항)에 따라서 학교시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서 학교의 장으로서 학교시설을 일상·정기·특별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필

요시 교육감에게 이와 대책을 수립·실행 요청한다.

3. 재무 관리

학교의 재무는 학교 교육과정 및 행정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목표에 따라 사업 학교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도록 한다. 이때 예산 사용에 있어서 교직원들에게 자율성, 책무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리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VI 맺는말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교직원의 임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법은 학교장에게 교무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학교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면하여 교육할 수 없다. 그렇기에 법은 교사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하도록 권한을 주었다.

학교장은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잘 지켜지며, 그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 수행되는지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호되도록 교원들의 성장에 관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교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 교원들이 학생들과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에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 교원들이 수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의 존재목적을 인식하고 학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교육가족들과 학교 현상을 분석하여, 창의적 업무 대안을 찾고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과 협의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학교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나의 다짐>

- 모든 업무를 학생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권리와 교사들의 권한이 온전히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 학생들의 행복이 교직원의 행복이고 교직원의 행복은 학교장의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행한다.
- 학교가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도록 교직원 사이에 서로 배우는 환경이 되도록 한다.
- 행정에 대한 바른 원칙을 세우고 처리하되, 유연성과 원칙성 사이에서 지혜를 발휘한다.
- 나의 눈과 나의 철학이 아닌 협의의 눈과 합의의 철학으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한다.